

■ 世明칼럼



김학진 교수
서울대 법학대학원

최고경영자(CEO)와 이사회 의장을 각각 다른 사람이 맡는 이른바 분리모델이 부각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이 그 모델 채택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SK가, 올해 삼성전자가 분리를 채택했는데 ‘베스트 프랙티스’를 선도한다는 평가도 받았다. 미국 상장회사의 약 20%, S&P500 기업의 거의 절반이 분리모델을 채택한다는 점도 지적된다.

그러나 해외 기업들이 CEO와 별도로 이사회 의장을 두는 경우는 대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다.

첫째, 회사에 오너가 없기 때문에 두 지위가 분리된다. 오너가 없는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새 CEO를 영입한다. 사실 이 이유가 미국 대기업에서 분리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다. 애플의 팀 쿡이 이사회 의장이 아닌 이유도 레빈슨 현 의장이 스티브 잡스 때부터 선임 사외이사였고 잡스 사후 팀 쿡의 CEO 발탁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오너가 있는 회사여도 피아트(FCA)의 마르키오네처럼 사외이사들 중에서 CEO가 발탁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분리가 발생한다.

둘째, 회사에 문제가 있어 CEO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 경우다. 월트 디

즈니 CEO였던 마이클 아이스너는 2004년에 본인의 재선이 결정되는 주총을 앞두고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이 불신을 표명하자 이사회 의장직을 CEO와 분리하는 것으로 사태를 무마하려 했다. 기업 경영에 가장 어두운 사외이사 전 상원의원 조지 미첼을 본인의 고사에도 불구하고 이사회 의장에 추대했다. 그러나 이는 폄수로 평가받았다. 아무도 아이스너의 진정성을 믿지 않았고 아이스너는 22년간의 CEO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이사직에서도 결국 퇴임했다.

셋째, 행동주의 주주들이 CEO의 힘을 약화시키려 시도하는 경우다. 후일의 국무장관 렉스 틸러슨이 CEO로 있던 2008년에 엑스모빌에서는 주주들이 회사의 친환경 정책이 미온적이라고 생각했다. CEO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분리모델 도입을 추진했다. 기관투자자들과 록펠러 패밀리가 CEO와 이사회 의장 분리를 위한 주주제안을 회사에 제출했다. 그러나 주주총회에서 39.5%의 찬성 밖에는 얻지 못해 부결되었다.

넷째,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구원투수를 영입하면서 오너가 잠시 후선으로 물러나는 경우다. 즉, 오너가 사외이사가 되는 경우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당시 포드 CEO였던 헨리 포드의 증손자 빌 포드는 앨런 머랄리를 CEO로 영입하면서 이사회 의장으로 옮겼다. 포드는 정부의 구제금융을 마다하고 회사 전 자산을 담보로 제공, 대규모 차입을 감행했다. 머

랄리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빌 포드는 포드 패밀리를 설득하는 역할을 맡았다. 회사는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포드 모델은 일종의 공동경영 모델인데 아직도 유지된다.

다섯째, 오너가 애당초에 경영에 관심이 없거나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 이사회 의장으로 참여한다. 여기서도 오너가 사외이사다. 경영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권을 행사한다.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서웨이는 버핏이 은퇴하면 아들이 이사회 의장이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오너가 사외이사로 참여해도 꼭 이사회 의장이 되지는 않는다. BMW의 오너 슈테판 크반트는 부의장이다. 폭스바겐처럼 특이하게 CEO직에 연령 제한을 두는 회사도 있다. 오너 파에히 전 회장은 65세에 CEO에서 의장으로 이동했었다.

여섯째, 두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양측의 수장이 CEO와 이사회 의장을 나누어 맡는 경우다. 대개 연장자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 아르셀로와 미탈이 2006년에 합병할 때 라시미 미탈은 자신이 인수 주체였지만 아르셀로의 회장을 이사회 의장에 올렸다. 그 은퇴 이후 미탈은 겸직을 유지하고 있다.

일곱째, 100% 분리인 독일의 경우다. 독일은 법률상 이사회가 복층 구조로 되어있는데 감독위원회와 경영위원회는 서로 중복되지 못하므로 자동으로 분리가 된다. CEO에 해당

하는 경영위원회 위원장이 퇴임 후에 일정 기간 쉬었다가 감독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임러의 디터 제체 전 회장이 지금 쉬는 중인데 내년에 감독위원회 위원장, 즉, 이사회 의장이 된다.

두 지위를 분리하는 것은 이사회가 CEO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기업들과 같이 오너가 경영 일선에 나서는 경우 두 지위를 분리하는 데 큰 의미는 없다. 오너 CEO에 대해 이사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오너 의장과 독자적인 존재감 없는 CEO는 사실상 분리하지 않은 것과 같고 오너 CEO와 이사회 소집과 진행 외에는 독립된 역할이 없는 의장도 사실상 분리하지 않은 것과 같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평가 기관들과 일부 교과서에서 좋게 평가한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모델을 택할 것은 아니다.

분리와 기업가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학술 논문들도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다. 회사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회사의 사업 내용과 소유구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논문도 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80% 이상이 분리모델이고 첨단 테크기업들은 30% 미만이 분리라는 자료도 있다. 특히 전환기에서 혁신과 신사업 모델 추진에 집중력이 요구되는 상황에서는 분리모델 채택이 리더십에 불필요한 차지 현상만 발생시킬 수 있다.

■ 社說

대구 확진자 3천81명에 17명 사망해도 대구시장은 병상 부족 타령만

선출직 공직자 최고의 책무는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의 실현이다. 그럼에도, 안전과 행복은 이제 코로나19사태를 맞아, 한낱 사치스런 말에 지나지 않는다. 사치보단 코로나19에 걸린 주민들이 자가 격리의 중에서, 의사의 얼굴조차 한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다면, 선출직 공직자는 그 어떤 말로도 해명이 불가능하다.

지난 2일 대구에서 70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숨졌다. 사후에 확진자로 판명이 났으니, 병을 앓을 때엔 의사의 손길조차 구경도 못했다는 게 아닌가를 묻는다.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8분 심정지 상태로 계명대 동산병원으로 이송된 79세 여성이 심폐소생술 시도에도 불구하고 숨졌다. 사후검사에서 코로나 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0시 46분에는 대구 가톨릭대병원에서 78세 여성이 사망했다. 이날 오전 7시 17분쯤에는 영남대 병원에 입원해 있던 64세 남성 확진자가 숨졌다. 이들이 사망하기 전에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해도, 공적기관인 보건소의 공무원은 만났을까를 의심한다. 만났다면, 기저질환과 코로나19를 동시다발로 치료가 가능했다고 또 다시 묻는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진자 수가 3천명을 돌파했다. 공공시설 병실 확보에서 대구시엔 공공·공적기관이 많다. 재택근무를 전제로 하는 말이다. 대구에서 2일 0시 기준으로 전일 오후 4시 대비 377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추가됐다. 누적 확진자는 3천81명으로 늘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일 0시 기준 확진환자는 4천212명이다. 대구의 환자만 3천81명이다. 전체의 73.1%를 차지했다. 대구는 이날 37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확진자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이날 오후까지 17명이 집계돼, 전국(27명)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전날(1일)과 이날 이를 새 확진자 8명이 사망했다. 위 같은 기록도 깨지기 위해서

있다는 말인가를 묻는다.

매일 같이 확진자 증가세에 권영진 시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그동안 병상 부족으로 인해 확진환자가 자가서, 대기하면서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지 못했다. 또 가족과 지역사회에 감염의 우려가 높아진 안타까운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적절한 치료, 안타까운 시간 등에서, 시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 할 망정, 이견 아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12일간에 도대체 시장의 마음속엔 갈팡질팡만 있었다는 말인가를 다시 묻는다. 이런 때에, 시장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안타까운 시간을 두고서란, 운운만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이면, 누구나 다 시장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시장은 그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지만, 적어도 시장은 기자회견 땀, 무슨 대책을 내놓아야한다. 권영진 시장은 이날부터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는 기존 1만 252명보다 303명 증가한 1만555명이다. 전날(1일)까지 소재가 불분명했던 141명 중 88명과 통화가 됐다. 대구시민들은 통화의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하다. 대구시는 이번 코로나19 확진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신천지 교인 파악에 애를 먹는다. 애를 먹는 줄을 누가 모르고 있지를 앓다.

일각에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최전선임을 고려할 때, 강제역학조사로 명단을 확보한 경기도 등 타 시·도 지자체와의 비교와 함께 뒤늦은 대처가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지난달 26일 신천지 명단 확보와 관련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서 강경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강경이라고 하는 것이냐. 대구가 미온적이란 이유를 모르겠다고, 시민들에게 대들듯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때때로 결과로써, 평가를 받는다. 대구시장에게 결과로선, 점수를 줄 수가 없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 하길 촉구한다.

■ 독자투고



이동훈 경사
경산경찰서 경무계

3월 2일 오전 12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 476명이 추가돼 지난, 1월 20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42일 만에 4,21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다.

정부 각 부처 모든 종사자들과 자원봉사자 등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고,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외교·사회·문화 등에도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

코로나19 위기 극복,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할 때

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특정 단체 소속 30여만 명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청에서도 전국 255개 경찰서에 5,750여 명의 신속 대응팀을 구성해 검사 대상자의 소재확인하고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경북 지방경찰청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청도경찰서, 경산·칠곡경찰서에 을호 비상근무(전 직원 연가중지, 가용경력 50% 동원 가능)를 발령하여 총력 대응하는 한편, 자치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제에 돌입하였으며, 경산경찰

서에서도 수사·형사 위주로 신속대응팀 40명을 편성하여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제를 갖추고, 역학조사 대상자 2명에 대한 소재를 확인하여·통보하였으며, SNS에 'oo병원 응급실 폐쇄 예정'이라는 가짜뉴스를 유포한 A씨 (32세)를 검거하여 사법처리 하였다.

온 국민이 합력어하고 어려운 시기이다. 기업인들과 단체들은 물론, 뜻있는 국민 개개인들이 각급 지자체에 구호 물품과 성금을 보내는 등 온정의 손길을 보내고 있고, 착한 건물주들은 세입자들의 임대료를 낮추어 주고 있는가 하면 모 음식점업 본사에서 가맹점들의 1개월 임대료

를 지원한다는 등 훈훈한 소식들을 접할 때면 지금 당장은 경황이 없고 당황스럽지만 '코로나19' 극복이 그리 멀지 않음을 직감하게 된다.

다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응원과 힘을 보태지는 못할망정 재미 삼아 가짜뉴스를 생산해서 전파하거나, 질병관리본부 1339에 장난 전화를 하는 행위, 특정 종교단체 소속이라며 보건당국에 거짓말을 해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마스크를 매점 매석하여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행위, 확진자 수를 맞추는 불법 도박 행위 등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다.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하나 되어야 할 때이다.

☞ 오피니언란의 외부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수도 있습니다.

본사 e메일 smnews123@hanmail.net

세상을 밝히는 신문

SM 세명일보

등록번호 : 경북 가00040

안동시 안기동 223-59(마지택길 3)

www.smnews.co.kr

발행인 김창원

편집인 김경일

편집국장 김봉기

대표번호 (054)901-2000

기사제보 (054)901-3000

광고문의 (054)901-4000

FAX (054)901-3535

편집부 (054)901-3000

편집부 (054)901-4545

사회부 (054)901-2525

사회부 (054)901-5335

북부분부 (054)654-2710

동부분부 (054)275-9007

대구본부 (053)215-1122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세명일보 구독 및 지국안내

대 구		
중앙	장영덕	011-9982-1022
수성	권무일	010-6325-8838
만촌	성기광	010-2875-4285
내당	김재봉	016-810-3160
고성	전용대	010-2522-3269
성서	김정완	010-9585-7116
송현, 월성	배기문	010-4533-0639
대곡	박영룡	010-4921-1062
대명	김경일	010-4888-7494
월배	이충규	010-3506-6867
논공	서재덕	010-3521-9876
동촌	문인환	010-4511-4534
불로	노상윤	010-2879-5725
반야월	김상수	010-6542-6471

경산	이용민	010-4877-4406
청도	이황용	010-3130-7782
동 부		
포항 효자	장법섭	010-4534-2111
포항 공단	성해원	010-4563-1564
포항 북포항	강재환	010-5540-4180
울릉	김영숙	010-3825-3193
영덕	오부근	010-3549-9155
울진	박호환	010-6524-2317
남 부		
경주	구수연	010-3551-4929
용강,황성	김동철	010-6775-6237
건천,충효	도대환	010-7311-6062
영천	정종태	010-2066-4871
군위	정철진	010-4621-0300

의성	박재성	010-3818-4634
충 부		
구미	김희태	010-5533-6545
김천	유호상	010-8504-5579
상주	조영우	017-521-9003
고령	신규성	010-2285-5759
성주	신규성	010-2285-5759
칠곡	이건호	010-7703-9450
북 부		
영주	조우현	011-522-1114
예천	백승두	010-3533-0952
안동	김동명	010-6525-8137
문경	이명환	010-6679-1160
봉화	김봉철	010-5566-7032
영양	이강순	010-3531-2692
청송	이미애	010-2567-7800